



| 발 행 일 자 | 2017년 10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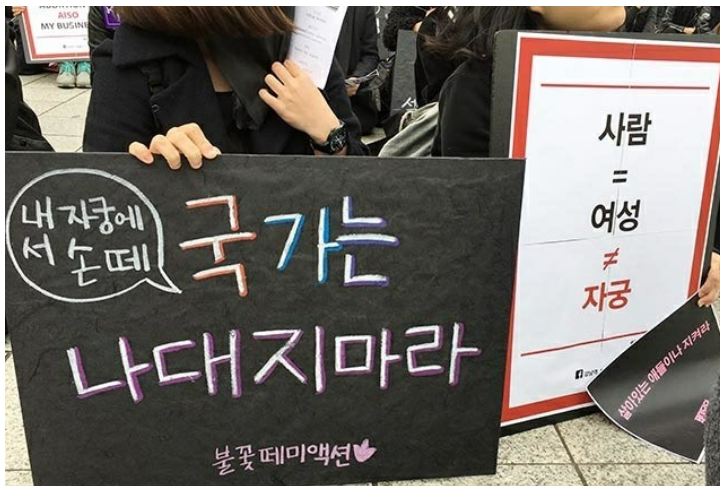
| 발 행 인 | 별별신문\_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별별신문

## 34호 이태원



©프레시안

이름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수술 지원을 요청하는 여성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불법인 한국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아닐 경우(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함)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타까움과 막막함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이루미들은 낙태죄 폐지를 촉

구하고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문제를 알리고자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상담현장에서 만난 언니들의 목소리로 발언한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뒷장 이어짐)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성구매자에 의한 임신을 했고 출산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절수술을 할 돈이 없고, 성매매는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중절수술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주차가 늘어갈수록 중절에 따르는 위험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간절하게 출산과 육아를 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많이 지고 있던 그 당시 업주는 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울거냐며 낙태를 하라고 했습니다. 업소 말고 어디서 돈을 벌어 자기 돈을 갚겠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업소를 나와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업주는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날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외에도 기혼여성, 장애, 십대, HIV감염인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낙태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중절수술을 하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사실을 상대남성에게 알린 후, 남성이 연락두절이 된다면 임신은 모두 여성의 책임이지만, 상대남성의 '허락'없이 중절 수술을 감행했을 때 남성으로부터 낙태죄로 고발당하기도 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가 정한 조건 없이 또한 어떠한 강제 없이, 스스로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건강과 안전,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구매자에 의한 임신이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의 임신이든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역시 자유롭게 임신중단 혹은 출산을 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_문제는\_낙태죄다 #모두를\_위한\_낙태죄폐지

##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상담소 02-953-6279**